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 2008년 중국 보험시장 규모 세계 6위 도약

- 스위스 리(Swiss Re)는 최근 발표한 <2008년 글로벌 보험 현황>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보험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국 보험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0% 이상(인플레이션 감안) 성장해 전년도 10위에서 6위로 4계단 도약한 것으로 나타남.
- 보고서에 따르면, 2008년 세계 보험시장 규모(수입보험료 기준)는 4조 2,70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2% 하락한데 비해, 중국 보험시장은 31.3% 증가한 1,408억 1,800만 달러로 미국, 일본, 영국, 프랑스, 독일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으로 급성장함.
  - 선진국들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조 2,190억 달러로 전년대비 5.3% 하락하는 등 작년 세계 생명보험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(전년대비 -3.5%) 신흥국가들의 생명보험시장은 오히려 14.6% 큰 폭의 성장을 시현했으며, 이 중 중국 생명보험시장이 40.9% 성장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발돋움함.
  - 중국 손해보험시장 역시 건강보험시장 개방, 올림픽 개최, 작년 상반기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14.8%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함.
- 스위스 리는 이 보고서에서 세계 보험시장은 2009년에도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겠지만, 중국 보험시장은 여전히 세계 보험시장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.
- 보고서는 세계경제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2009년에도 세계 보험시장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중국 보험시장은 2008년보다 상승 폭은 둔화되더라도 세계 보험시장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.
  - 한편, 중국 보험시장은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보험침투도는 3.3%에 불과해 세계 평균치인 7.1%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음.

(Swiss Re sigma "World insurance in 2008", 상하이증권보, 7/2)